

제 5 교시

제2외국어/한문 영역(한문 I)

성명 수험 번호

1. 그림과 대화의 내용으로 보아 ㉠에 알맞은 것은? [1점]



교사: 이 그림은 허유(許由)가 귀를 씻던 광경을 그렸다고 하여 '許由(㉠)耳圖'라고 합니다.
 학생: 귀를 왜 씻었나요?
 교사: 요(堯) 임금의 천하를 맡아 달라는 부탁을 했기 때문이지요. 그는 자기의 귀가 더러워졌다면서 귀를 씻으러 갔어요. 마침 소에게 물을 먹이러 왔던 소보(巢父)가 그 이유를 듣고는 더러워진 물을 먹일 수 없다며 되돌아갔다는 고사가 있어요.

- ① 牛 ② 洗 ③ 溪 ④ 細 ⑤ 濁

2. 두 자를 <보기>와 같이 합하여 하나의 한자로 만들 때, ㉠과 ㉡의 음이 모두 옳은 것은? [1점]

<보 기>
日 + 辰 = (晨)

○ 叔 + 目 = (㉠) ○ 分 + 貝 = (㉡)

- | | | | |
|-----|---|-----|---|
| ㉠ | ㉡ | ㉠ | ㉡ |
| ① 독 | 빈 | ② 숙 | 빈 |
| ③ 독 | 탐 | ④ 숙 | 탐 |
| ⑤ 독 | 분 | | |

3. 같은 뜻을 지닌 한자끼리 연결된 것을 <보기>에서 고른 것은? [1점]

<보 기>
 ㄱ. 取 - 捨 ㄴ. 浮 - 沈
 ㄷ. 但 - 只 ㄹ. 具 - 備

- ① ㄱ, ㄴ ② ㄱ, ㄷ
- ③ ㄴ, ㄷ ④ ㄴ, ㄹ
- ⑤ ㄷ, ㄹ

4.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한자는? [1점]



- ① 保 ② 步 ③ 昌 ④ 走 ⑤ 奏

5. ㉠에 알맞은 것은? [1점]

【 ㉠ 】

원래의 뜻
 • 가을철에 털같이하여 새로 돌아난 짐승의 가는 털.

확장된 뜻
 • 매우 적거나 조금인 것.

- ① 秋毫 ② 千秋 ③ 秋霜 ④ 春秋 ⑤ 秋收

6. 그림과 글을 통해 말하고자 하는 것은? [1점]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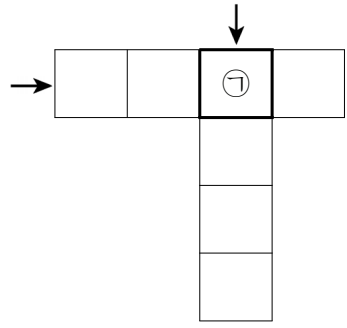
- ① 節制 ② 協同 ③ 奉仕 ④ 容恕 ⑤ 遵法

7. ㉠과 ㉡에 공통으로 들어갈 것은?

○ 人(㉠)至愚, 責人則明. - 『소학』 -
 ○ 謂學不暇者, (㉡)暇, 亦不能學矣. - 『회남자』 -

- ① 何 ② 非 ③ 奚 ④ 胡 ⑤ 雖

8. 화살표 방향으로 성어를 채울 때, ㉠에 알맞은 것은?



【가로 열쇠】 이치에 맞지 않는 말을 역지로 끌어 붙여 자기에게 유리하게 함.
【세로 열쇠】 죽대 없이 남의 의견에 따라 움직임.

- ① 引 ② 府 ③ 附 ④ 從 ⑤ 符

9. ㉠과 관계있는 성어는? [1점]

강화도는 이 나라의 요충지로 고려 이래로 일이 생길 때마다 먼저 칼날을 받아왔소. 하물며 지금은 바닷길이 사방으로 통해 있으니, 적들이 결코 물길을 버리고 육로로 가고자 하지 않을 것이요. 이곳만 통과한다면 곤장 한양에 도달할 수 있으니, 문지방을 지키지 못하고서 집안을 지킨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요. 만일 이와 같이 된다면 중국과 조선에 큰 우환을 끼치게 되어 ㉠ 서로 믿고 의지하는 세력을 잃는 꼴이 되고 말 것이요.

- 『운양집』 -

- ① 伯牙絕絃 ② 尾生之信 ③ 漸入佳境
④ 緣木求魚 ⑤ 唇亡齒寒

10. 그림의 한자로 만들 수 있는 사자성어의 의미와 관계있는 것은?



- ① 거침없는 기세로 결승까지 올라갔어요.
② 옆에서 뭐라 하든 아랑곳하지 않는군요.
③ 어려서부터 같이 놀아서 눈빛만 봐도 통해요.
④ 미리미리 대비하지 못한 것이 너무 아쉬워요.
⑤ 어르신지 지혜를 빌리니 일이 쉽게 해결되었네요.

11. 글의 내용과 관계있는 성어는?

蓋天下之士，於此有所長，則於彼有所短，於彼有所蔽，則於此有所見矣。

- 『서하집』 -

- ① 日就月將 ② 角者無齒 ③ 先見之明
④ 過猶不及 ⑤ 易地思之

12. 그림과 대화의 내용으로 보아 ㉠에 들어갈 것은? [1점]



- ① 洞 ② 屋 ③ 段 ④ 閣 ⑤ 層

13. 대화의 내용으로 보아 ㉠에 알맞은 것은?



- ① 不知其人，視其友. ② 聞則病，不聞則藥.
③ 行百里者，半於九十. ④ 朋友有過，忠告善導.
⑤ 靜則常安，儉則常足.

14. 시나리오의 ㉠에 들어갈 시구로 가장 알맞은 것은?

S#15. 흥노의 궁궐 안

봄날 황량한 사막에 지어진 궁궐을 시름에 잠겨 거닐고 있는 왕소군. 걸을 따르는 시녀, 그런 왕소군을 안쓰럽게 바라본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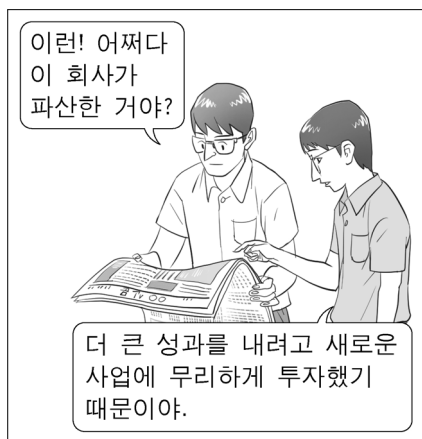
왕소군: 이곳으로 시집온 게 엇그제 같은데 새봄이 되었구나. 고향에 있는 가족들은 무탈한지…….

시녀: (울먹이며) 마마, 몸이 무척 아위셨어요. 돌아갈 수 없는 고향 생각일랑 그만 하세요!

왕소군: (한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저으며) 온갖 꽃들이 만발한 고향 동산에서의 행복했던 순간들을 어떻게 잊을 수 있겠어? ㉠(이)라더니, 이곳엔 꽃과 풀조차 없어. 봄이 왔는데도…….

- ① 春眠不覺曉 ② 山青花欲然
③ 春水滿四澤 ④ 花落今朝風
⑤ 春來不似春

15. 대화의 내용과 관계있는 것은? [1점]



- ① 三歲之習，至于八十.
- ② 我腹既飽，不察奴飢.
- ③ 知足可樂，務貪則憂.
- ④ 欲勝人者，必先自勝.
- ⑤ 精神一到，何事不成.

16. 글의 의미와 관계있는 것은?

未有涉川而後乘船. -『이담속찬』-

- ① 背水陣 ② 登高自卑
- ③ 滿招損，謙受益. ④ 飛者上，有乘者.
- ⑤ 橫步行，好去京.

17. 글의 내용과 관계있는 것은? [1점]

남이 나를 의심하는 것은 평소 내 행동이 남에게 신임을 받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. 나도 분한 마음에 큰소리로 따지고 관부에 소송을 제기하고 천지신명에게 따져 물어 기필코 밝혀야 한다는 걸 모르는 것은 아니다. 하지만 나는 차라리 실체가 없는 누명을 참으며 내면의 인격을 연마하는 쪽을 선택하겠다. 인격이 쌓여 길으로 드러나면 모든 사람이 심복할 것이다. -『가정집』-

- ① 君子求諸己. ② 有餘者，常譽人.
- ③ 以勢交者，勢傾則絕. ④ 本不結交，安有絕交.
- ⑤ 疑人莫用，用人莫疑.

18. 글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은?

鍊石築臺，上方下圓，高十九尺. 通其中，人由中而上下，以候天文. -『신증동국여지승람』-



19. ㉠과 같은 뜻으로 쓰인 것을 <보기>에서 고른 것은?

道在爾而求諸遠，事在易而求諸難，人人親其㉠親，長其長，而天下平.
* 爾(이): 가깝다 -『맹자』-

〈보 기〉
㉠. 親近 ㉡. 兩親 ㉢. 老親 ㉣. 親善

- ① ㉠, ㉡ ② ㉠, ㉢ ③ ㉡, ㉣
- ④ ㉡, ㉣ ⑤ ㉢, ㉣

20. ㉠에서 말하고자 하는 태도로 옳은 것은?

仲弓問仁，子曰：“㉠出門如見大賓，使民如承大祭，己所不欲，勿施於人，在邦無怨，在家無怨.” -『논어』-

- ① 寬大 ② 恭敬 ③ 清廉 ④ 高潔 ⑤ 勤勉

[21~22]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.

楚人有涉江者，其劍自舟中墜於水，遽契其舟，曰：“是吾劍之所從墜.” 舟止，從其所契者，入水求之. 舟已行矣，而劍不行.
* 楚(초): 나라 이름 * 墜(추): 떨어지다 * 遽(거): 갑자기 -『여씨춘추』-

21. 글의 흐름으로 보아 <보기>의 문장이 들어갈 위치로 알맞은 것은?

〈보 기〉
求劍若此，不亦惑乎?

- ① ㉠ ② ㉡ ③ ㉢ ④ ㉣ ⑤ ㉤

22. 윗글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 가장 필요한 사람은?

- ① 다른 사람의 잘못을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
- ② 소신 없이 다른 사람의 의견에 동조하는 사람
- ③ 남들이 자신을 알아주지 않는다고 불평하는 사람
- ④ 융통성 없이 낡은 생각을 고집하는 어리석은 사람
- ⑤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고 자기 이익만 추구하는 사람

[23~24]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.

附耳之言, 勿聽焉, 戒洩之談, 勿言焉. 猶恐人知, 奈何言之,
 ㉠奈何聽之? 既言而(㉡)戒, 是疑人也, 疑人而言之, 是不智也.

*洩(설): 새다
 - 『연암집』 -

23. ㉠의 의미로 옳은 것은?

- ① 의심하지 말고 들어야 한다.
- ② 말을 들으면 실천해야 한다.
- ③ 그런 말은 들을 필요가 없다.
- ④ 다른 사람이 들으면 안 된다.
- ⑤ 숨은 의도를 새겨들어야 한다.

24. 글의 내용으로 보아 ㉡에 알맞은 것은?

- ① 勿 ② 失 ③ 無 ④ 復 ⑤ 聽

[25~27]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.

尹澤, 茂長人. 早孤, 不識父面, 於㉠方策中, ㉡見述父子之情,
 未嘗不流涕, 常佩一囊, 得異味, 必盛以獻母.

*尹澤(윤택): 사람 이름 *涕(체): 눈물
 *佩(패): 차다 *囊(낭): 주머니
 - 『해동속소학』 -

25. 의미상 ㉠과 바꾸어 쓸 수 있는 것은?

- ① 風聞 ② 書籍 ③ 消息 ④ 都城 ⑤ 遺品

26. ㉡에서 마지막으로 풀이되는 것은?

- ① 見 ② 述 ③ 父子 ④ 之 ⑤ 情

27. 윗글의 내용으로 알 수 있는 것만을 <보기>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?

<보 기>

ㄱ. 윤택은 아버지를 여의었다.
 ㄴ. 윤택은 아버지의 얼굴을 알지 못한다.
 ㄷ. 윤택은 어머니 생각이 날 때마다 눈물을 흘렸다.
 ㄹ. 윤택은 맛난 음식을 얻으면 어머니께 가져다 드렸다.

- ① ㄱ, ㄷ ② ㄴ, ㄷ
- ③ ㄴ, ㄹ ④ ㄱ, ㄴ, ㄹ
- ⑤ ㄱ, ㄷ, ㄹ

[28~30] 다음 시를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.

(가) 長江悲已㉠滯, 萬里念㉡將歸.
 況屬高風晚, 山山黃葉飛.
 - 왕발, 「산중(山中)」 -

(나) 鏡裏㉢誰憐病已成, 不須醫藥不須驚.
 他生㉣若使君爲我, ㉤應識相思此夜情.
 - 박죽서, 「기정(寄呈)」 -

28. ㉠~㉤의 풀이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㉠: 막히다 ② ㉡: 장차
- ③ ㉢: 누가 ④ ㉣: 같이
- ⑤ ㉤: 마땅히

29. 위 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<보기>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?

<보 기>

ㄱ. (가)의 형식은 오언율시이다.
 ㄴ. (가)에서 넷째 구를 통해 계절적 배경을 알 수 있다.
 ㄷ. (나)의 둘째 구는 ‘不須醫藥 / 不須驚’으로 띄어 읽는다.
 ㄹ. (나)에서 셋째 구와 넷째 구는 대우(對偶)를 이루고 있다.

- ① ㄱ, ㄷ ② ㄱ, ㄹ
- ③ ㄴ, ㄷ ④ ㄱ, ㄴ, ㄹ
- ⑤ ㄴ, ㄷ, ㄹ

30. (가), (나)에 대한 이해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(가)에는 시적 화자가 객지에 있음을 알 수 있는 시어가 사용되었어.
- ② (가)에서는 자연의 풍광이 시적 화자의 정서를 고조시키고 있어.
- ③ (나)에는 현실을 받아들이 수밖에 없는 시적 화자의 체념이 나타나 있어.
- ④ (나)에는 자신의 심정을 몰라주는 입을 향한 그리움이 담겨 있어.
- ⑤ (가)와 (나)는 모두 선경후정(先景後情)의 기법이 사용되고 있어.

* 확인 사항
 ○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(표기)했는지 확인 하시오.